

배포일시	2018. 11. 5.(월) 17:00 (총 4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	담당자	과 장 박 종 숙
		전화번호	070-7850-8337

수도권기상청, 날씨처럼 모기를 예측하다!

- 「2018년도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사용자 간담회」 개최 -

- 수도권기상청(청장 김성균)은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으로 「기상자료 기반 도시표준 모기 활동지수」를 개발하여 최종 시연회를 11월 5일(월) 14시에 수도권기상청에서 개최한다.
- 이 사업은 기상청의 “차세대도시·농림융합기상사업단”에서 개발한 모기활동 예측기술을 기반으로, 2018년도에는 수도권 인구의 96% 거주하는 도심표준 환경에 맞는 모기 활동지수를 개발하였고, 2019년도에 검증 및 개선을 통한 알고리즘 최적화를 위한 기술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.
- 인천시는 현재 모기발생상황 감시를 위해 「실시간 모기발생정보 모니터링 시스템(DMS : digital mosquito monitoring system)」를 구축하였으며(2017년), 수도권기상청의 2018년도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사업을 통해 모기 관측자료와 모기의 생장과 발달 특성을 고려한 고해상도 기상·토지이용·지형고도 등을 활용하여 모기 활동지수를 개발했다.
- 이번 시연회는 △ 수도권기상청의 지역기상융합서비스 개발 현황 및 계획, △ 모기 활동지수 기술 특성, △ 인천광역시 지리정보시스템(GIS) 기반으로 구축된 실시간 표출화면 시연 및 △ 서비스 활용 강화와 차년도 사업 추진 방향을 위한 참여기관 관계자간 간담회로 진행된다.

□ 수도권기상청은 시공간 특성을 고려한 모기 활동성정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기반의 효율적 모기 방역관리로 시민들의 모기로 인한 불쾌감을 감소시키고, 모기 방제를 위한 약품사용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위험감소 및 예산 절감효과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붙임

1. 인천광역시 '모기 활동지수' 실시간 표출 화면
2. 2018년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사용자 간담회 사진

